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의 정재영입니다.

우리 여행은 런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런던 여행을 도와줄 철학자는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런던 타워는 타워 브리지로  
연결이 됩니다.

중세의 런던과 근대 런던을  
대표하는 두 건축물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로 순간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비상한 재주를

영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연결 통로는 토끼의 굴입니다.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옷장이 두 세계를 연결합니다.

<해리포터> 에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는

킹스크로스 역의  
9와 3/4 플랫폼

2개, 3개를 접속하는 통로가  
현실의 철도 정거장이죠?

우리 런던 철학 산책은  
런던 타워에서 출발합니다.

유럽 변방에 이 작은  
섬나라가

근대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과정은

런던 타워가 있는 1평방마일의  
런던 시티가

600평방마일의 대 런던으로  
확장되는 풍경과 궤를 같이 합니다.

17C에 인구 20만 남짓의 런던은

19C 말이 되면 800만이 넘는

유럽 최대 도시로  
팽창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정치가이자  
문인 디즈레일리는

런던을 근대의  
바빌론이라고 불렀죠.

1616년 런던 지도를 보십시오.

오늘의 런던 풍경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대형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빅벤

하이드 파크와  
프림로즈 힐과 같은 공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드는  
블롬스버리

템스 강변의 다리들  
철도역과 튜브

모든 게 실종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명소는 17~19C 사이에  
하나씩 보태진 풍경이니까요.

런던 타워는 11C 후반 노르만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템스강 하류에 세운  
요새 같은 궁전이었습니다.

한때 이곳에 투옥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대를 빼고는

11C 말부터 17C 초까지  
중세 영국 정치사의 중심이었죠.

소년 왕, 13세 에드워드 5세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헨리 8세의 왕비 앤 불린과

9일 만에 폐위된  
레이디 제인 등이

이 런던 타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죠.

왕족뿐만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쓴 16C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토마스 모어도 반역죄로 투옥된 후  
공개 참수되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도 같은 길을  
밟을 뻔했습니다.

뇌물수수를 포함한  
23개의 죄목으로

런던 타워에 투옥되었지만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정치세계에서 베이컨은  
추락했지만

철학 세계 편에서 보면  
행운이었습니다.

경험주의 철학은 베이컨 철학에서  
그 연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험과 꾸준함을 강조하는  
근대 과학의 태동은

베이컨의 학문 방법론에서  
추동력을 얻었습니다.

정치인 출신답게  
베이컨은 학자들에게

밀실에서 이렇게 연구하기보다는  
학문적 공동체에서

협동연구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유토피아 구성은

영국 왕립학회 발족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런던 타워에서 템스강  
상류 방향으로 거슬러 가면

베이컨이 살았던  
당시의 런던과

베이컨이 구상했던  
런던의 풍경이

교차되면서 나타납니다.

마천루로 바뀐 런던 금융과  
시티를 지나서

스트랜드 거리 뒤편 한구석에는  
요크 워터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문은 원래 템스강에서

요크 하우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운 문이었죠.

지금은 사라진 요크 하우스.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태어난 곳입니다.

요크 하우스는 로드 키퍼  
(Lord Keeper)의 공간입니다.

로드 키퍼는 국새상서  
공적 문서에 사용되는

왕의 인장을 보관하는  
대신을 말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로드 키퍼이자 로드 찬슬러인

니콜라스 베이컨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후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공교롭게

아버지인 니콜라스와  
똑같은 직책을 맡게 되죠.

자신이 국새상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태어난

요크 하우스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직책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 직책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노뭉 오르가눔> 신기관  
또는 신논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문이 도구가 되는

논리학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책이라는 뜻인데요.

당대 논리학의 전범으로 통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입힙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배가 거대한 두 개의 기둥 사이를  
통과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개의 기둥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기둥을  
가리킵니다.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  
지브롤더 해협에

솟아있었다고 상정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 밖을 나가면  
지중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대서양이 열립니다.

고대 세계에서 헤라클레스의  
이 기둥은

이 선을 넘어서 더 가지 말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라틴어로는 '네크 플루스 울트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정어 네크를 지워버리면요.  
정 반대의 뜻이 됩니다.

'플루스 울트라' 곧 이 선을 넘어서  
더라는 뜻이 됩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네크 플루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루스 울트라' 곧 헤라클레스  
기둥을 넘어설 것을 권장했습니다.

베이컨의 신기관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르네상스의 정신 플루스 울트라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항해,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취적인 진보의  
정신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정보의  
모터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는

과도기에는 항상  
양면성이 교차하죠.

프랜시스 베이컨만큼  
지난 시대의 학문을

독하게 지워버린 이가  
또 있을까요?

베이컨 학문의 혁신은 한편으론  
옛 학문에 대한 독설이고

다른 한편으론 새 학문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 철학을 왜 폐기해야 하는가?  
하는 진단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 철학  
구축을 위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왜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죠?

그것은 기존의 학문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은 이 같은 '병'을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질병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흥미로운  
이름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가지고 있는  
종족의 병, 종족의 우상

종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그룹이 가진

선입견이나 폐단을 뜻하는  
동굴의 병, 동굴의 우상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장의 우상

화려한 장식을 갖춘  
극장처럼

권위만 앞세우는 극장의 우상  
등이 그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베이컨은 당시  
학문의 왕으로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은  
이 4가지 병에

모두 병들어있다고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병들어있는 학문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그 해독제로 제시한 것이  
'귀납'이라는 약입니다.

귀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개별 사실들을 수집해서

일반화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뼈대를 이루는 삼단논법이

지식의 진보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삼단논법은 연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번 유명한 삼단논법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사례에서 대전제가  
성립한다면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은  
아무 오류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대전제에 있죠.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되죠?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이러한 많은 사례들이 모여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일반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베이컨이 학문의 진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귀납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인간은 죽는다"  
라는 대전제를 수용한 것

이것이 지금까지 학문이 병든  
근본 이유라고 본 것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대전제가  
옳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용성을 주죠?

그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베이컨은 이러한  
삼단논법이

쓸모없다,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베이컨이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으로  
제안한 귀납은

그 후 영국 경험주의적 전통의  
한 특징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생산적인  
연역 논리를 거부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베이컨 이후

영국 경험주의 전통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것은 후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나는 아무런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라는 선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말은 뉴턴이

현상들로부터 만유인력 법칙이  
도출된 것이지

신비로운 힘인

만유인력이라는 가설을

처음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는  
강조 표현입니다.

대전제든 가설이든 일반 원리든  
경험주의적 전통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은 베이컨 학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 강조한  
귀납의 방식은요.

개별 사실들에서 귀납적 일반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학문의 진보는 개별 사실들이  
되도록 많이 확보될수록 좋다는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가 산처럼 쌓인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반화 원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죠.

베이컨은 학문 연구를 꿀벌처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돌아다니고  
경험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해서

학문이 발전하진 않습니다.

그 반대로 거미는 자신 속에  
있는 것으로 집을 짓죠.

그렇게 해서도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료들을 모으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변화하고 소화해서

유용한 꿀을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죠.

꿀벌에 비유해서

거미는 이성과 연역과 사변적  
태도를 중시하는 학문 연구

개미는 경험과 귀납을 중시하는  
학문 연구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베이컨은 양자를 결합한  
학문 연구 방식을

꿀벌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문 연구를 해야

꿀벌처럼 달콤한 꿀을  
만들 수 있죠?

베이컨은 열 현상 연구에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존재 사례 목록

이 사례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실험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모든 열이 나타나는  
사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재 사례 목록입니다.

없는 것을 쭉  
모은다는 뜻인데요.

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부재 사례 목록은 참 무한하죠.

그래서 항상 존재 사례 목록과  
함께 작성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빛은  
열을 발산하지만

달의 빛, 달빛은  
그렇지 않죠.

셋째는 정도 비교 목록입니다.

이러한 존재 사례, 부재 사례  
비교 목록이 완성되면요.

네 번째로 제거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열은 태양에서는  
나타나지만

달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천체의 성질이 아니죠.

다섯 번째 이 목록을  
바탕으로

베이컨이 공리라고 부르는  
가설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이성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섯째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실험입니다.

사실 실험에 대한 강조는  
베이컨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또 실험의 역할은 근대 학문과  
옛 학문을 구분하는

큰 표지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컨은  
열 현상과 부패에 대한

실험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런던 북부 하이게이트 근처를  
지날 때 눈이 펄펄 쏟아지자

베이컨은 마차를 돌려서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는 닭의 내장을 제거한 후  
그 속에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실험 후 그는  
오한에 시달렸고

기관지염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향년 65세 런던 타워에서  
풀려난 지 5년 뒤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자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큰 흐름에서 보면  
베이컨만큼 근대 학문적 전통에서

방향타를 제시한 큰 인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의 앞날을 예견한 예언자였고

좁은 의미의 경험주의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경험주의 철학을 탄생시킨

비조였습니다.

베이컨의 예언자적 면모는  
그의 사후에 출간된

<새로운 아틀란티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베이컨은 이 책에서 그가 제안한  
귀납과 실험의 방식으로

학문 연구를 하는 이상향  
아틀란티스를 구상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인류의 복지와 학문의 발전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상은 로버트 보일과 같은  
17C 지성을 자극했습니다.

1660년 영국 왕립학회가  
출범되고요.

6년 뒤에는 프랑스에서  
왕립 아카데미가 출범됩니다.

런던시를 산책하다 보면 수많은  
학술 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베이컨이 꿈꾼  
학문적 이상향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실현된 것이  
아닐까요?